## 제주 담은 단편영화 2편 유바리국제영화제 초청

제주를 담은 단편 영화 2편이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 초청작으로 국제 무대에 선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28일부터 5일간 열리는 제32회 일본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안선유 감독의 '꼬마이모'와 오유찬 감독의 '그렇담, 안녕히'가 초청됐다고 4일 밝혔다.

이 두 작품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돼 작품 당 2000만 원씩 지원받았다.

'꼬마이모'는 집안의 골칫거리 꼬마이모 지란과 그런 이모를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말하는 열두 살 조카 소영의 이야기를 다룬 성장 영화다.

'그렇담, 안녕히'는 제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서현이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에 가던 도중 우연히 짝사랑하던 홍규를 만나 제주여행을 하며 그려가는 이야기다.

한편 유바리국제영화제는 도쿄판타스틱국제영화제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판타스틱영화제로, 매년 전 세계에서 출품된 경쟁작 30여 편과 초청작 60여 편이 상영된다.

## 지역연계 음악프로그램 '아랑조을클래식' 운영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오는 11일부터 클래식과 오페라 등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이해를 돕기 위한 음악프로그램 '아랑조을클래식'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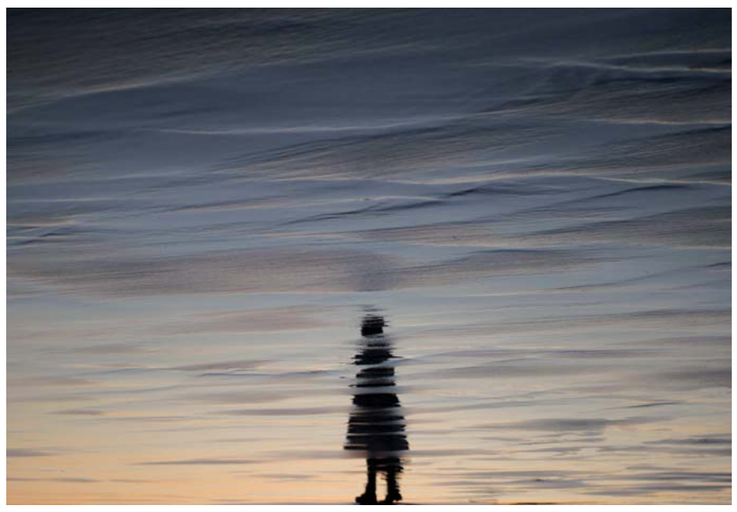
'아랑조을클래식'은 11월 21일까지 5개월 간 제주시 원도심 문화공간 '까사돌(제주시 중앙로12길 7)'에서 매주 월요일에는 '클래식과 인문학', 매주 금요일엔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감상'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모집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클래식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강의 당 최대 20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문예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은지기자

# 프레임 속 공간에 각인된 순간

### 윤슬 작가, 5년간 결실 선봬 사진전 '각인' 오는 9일~14일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윤슬 작 '각인 No.5'

윤슬 사진작가가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에서 개인전을 연다. '각인'이라는 이름을 단 이번 전시에선 "빛의 이면인 그림자에 시선을 몰입한" 작가의 5년간의 작업 결과물 14점을 만날 수 있다.

작가는 "나의 작업은 촬영한 사진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궁극적으로 경이로운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시각적 은유의 방법을 통해 사진으로 표현해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소개한다. 그가 "현실 속 실재인 반영과 그림자는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미묘한 심연의 세상을 보여주는 신비로운 장면을 만들어낸다"고 말하듯 사진 속 풍경은 오묘함을 자아낸다.

작품 속 피사체는 보는 이의 감정과 상상력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상상의 여지를 둔 것은 관객들이 "한 장의 사진을 조금 더 오래도록 머물러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한 작가의 바람이기도 하다.

휴관일 없이 진행되는 전시기간 동안 작가가 상주해 전시장을 지킬 예정이니 작가와의 대화를 원할 땐 언제든 작가를 찾으면 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한편 윤슬 작가는 2014년 제주로 이주한 후 제주시 조천읍에서 2019년까지 무인사진갤러리 '각인'을 운영하며 2020년까지 꾸준히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해 작품활동을 이어왔다.

오은지기자

# 동네 책방들의 여름 이야기

### 우당도서관 로비서 '모다드렁 책방 이야기' 8월 31일까지 '우리를 해방하는 책들'전시

제주시 우당도서관 로비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다드렁 책방 이야기' 전시회는 동네 책방만의 개성 있고 독특한 도서를 시민들에게 소개해 지역사회 독서문화를 함께 이끌어 나가고자 기획한 민·관 협력 프로그램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서로 다른 주제의 책방도서전 운영으로 기획됐다.

올해 봄 열린 1기 전시회는 '우리가 사랑한 책들'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시민들과 만났다. 이달부터 시작된 2기 여름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를 해방하는 책들'이다. 전시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모다드렁 책방 이야기 전시회를 통해 시민과 책방, 도서관이 함께 모다드렁, 독서문화로 소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 음악극 '나포리 음악다방' 오는 16일 문예회관 대극장

오는 16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창작 음악극 무대가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에서 제작한 음악극 '나포리 음악다방'이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22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공립예술단체 우수작품이다. 오랜 세월 동네를 지키며 한때 누군가의 아지트였던 서울의 근현대 발전사와 정서를 담고 있는 실존 장소인 '나포리 음악다방'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지역민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청춘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소통하는 이야기로 구성됐다. 공연은 무료며, 예약은 제주문화예술진흥원 예매시스템에서 하면된다.

부재호 문화예술진흥원장은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국공립예술단체 우수작품을 많은 도민이 감상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황학주의 제주살이 (41)

## 노인들의 병실

비상 등빛을 깜박이며 응급의료센터 문 앞에 119구급차가 한 대가 서 있다. 주황색 복장을 한 이송 요원이 차 문을 열어놓고 대기하고, 조금 있자니 구급차 옆에 다른 구급차 한 대가 와 나란히 선다. 나중에 온 구급차는 사설업체의 차량이다. 나는 병실 창가에 기대어 우두커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먼저 와 있던 차의 들것에 앉은 상태로 환자가 내리고, 조금 뒤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가 들것에 누운 채 실려나와 사설업체의 구급차에 탄다. 들어간 환자도 나온 환자도 노인이다.

나는 대장내시경에서 용종이 발견돼 시술을 했고, 출혈이 있어 하루 입원을 하게 되었다. 병실 안엔 모두 노인들이다. 노인의 나이를 몇 살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자주 화제가 되는 사회이다. 그렇다고 거기에 무슨 정답이 있겠는가. 어쨌든 나는 스스로 노인축에 든다는 생각이 들고, 병실에 있는 다른 3인도 내 눈에는 노인들이다.

병실마다 노인들이 많다. 문제는 노인들의 병실 풍경이 너무 어둡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노인들의 표정과 행동에 검은 그림자가 짙고 마냥 암울해 보인다. 화장실을 오가다 마주쳐도 인사조차 없다. 하루를 같이 잤으나 서로 말을 거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저 지나치다가 내가 먼저 목례를 하는 정도이다.

젊은 사람이 아픈 것과 나이 든 사람이 아픈 것은 같을 수가 없다. 노인은 회복이 더디고 대부분의 병은 낫지 않는다. 내가 보기엔 환자보다 병원 환경이 더 비참한 마음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다. 노인의 병실은 달라야 한다. 노인이란 병의 경중(輕重)을 떠나 병실에서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조건인데 작은 친절함이라도 베풀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말동무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생각에 우리나라엔 좋은 병원이 없다. 이름난 병원들이 있고 소위 명의로 알려진 의사들이 있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환자의 입장에서 좋은 병원, 가고 싶은 병원은 사실상 없다. 환자 네 명의 공간은 커튼으로 가려지고, 침대 하나와 코딱지 만한 테이블 하나가 전부이다. 거기선 사실상 몸 하나 제대로 움직이는 게 용이하지 않다. 한쪽 팔에 수액을 꽂은 채 화장실 세면대 위에 걸린 샤워기로 머리를 감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코로나로 인해 면회마저 불가능하니 머리는 봉두난발하고, 꼴들은 말이 아니어 구치소에 가깝다.

소노 아야코는 계로록(戒老錄)에서 '받은 것을 요구하게 된 사람이 나이에 관계없이 노인'이라고 봤다. 인사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자. 옆 사람에게 말 한번 붙여주는 것도 못 한다면 노인의 자격이 없다. 모두들 아프다. 그렇지만 아직도 줄 게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자. 그리고 제발 돈벌 생각만 말고 병원 환경 좀 개선해 달라. 이게 뭔가. <시인>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뮤지컬 '우리 아빠가 최고야'

제주에서 2019년 첫 선을 보였던 가족 뮤지컬 '우리 아빠가 최고야'가 3년만에 다시 제주에서 공연된다.

'우리 아빠가 최고야'는 극단 트멍과 인생연극 주최, 극단 아이짬 주관으로 오는 30일과 31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펼쳐진다.


취 축 CONGRATULATIONS 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 영 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 경 학 (구좌JC특우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대천동·중문동·예래동(2선)

임 정 은 (중문JC특우회)

한림읍

양 용 만 (한림JC특우회)

이도2동갑

김 기 환 (제주JC)

비례대표

강 하 영 (서귀포JC특우회 부인회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 광 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지구JC특우회 역대회장 협의회** 회장 **김 동 완** 외 **역대회장일동**

김동규(한국JC특우회 27대 중앙회장, 제주지구 19대 회장) 홍명표(5대 회장) 고종건(8대 회장) 김원하(11대 회장) 임광흡(12대 회장) 강민홍(13대 회장) 문택구(14대 회장) 김영배(15대 회장) 홍국태(16대 회장) 고성국(20대 회장) 김호봉(21대 회장) 김동완(23대 회장) 김두만(24대 회장) 원방식(25대 회장) 김찬보(26대 회장) 김진배(27대 회장) 원윤웅(28, 29대 회장) 이태봉(30대 회장) 김천수(31대 회장) 홍군옥(32대 회장) 이승언(33대 회장) 양용만(34대 회장) 고병효(35대 회장) 김창현(36대 회장) 고정효(37대, 현회장)